

#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글세”

### 사업자, 투자금 10% 예치 요구에 “승인 먼저” 자본검증위 “소명 미흡… 한달내 의견서 작성”

제주 최대 규모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이 안갯 속으로 빠졌다. 사업자인 JCC와 자본검증위원회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는 지난 25일 제주도청 별관 2층 환경마루에서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27일 4차 회의 이후 10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금 3조3730억원의 10%인 3373억원을 제주도 지정계약에 예치하라는 자본검증위의 결정에 대해 JCC가 “초법적일 수 있다. 다만 사업 승인을 해주면 1억달러(약 1200억원)를 제주도 지정 계약이 아닌 ‘우리의’ 계약에 이

체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JCC가 자본검증위 결정을 사실상 불복하면서 11월말 작성·의결되는 ‘의견서’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담길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자본검증위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자료에 대한 소명 등이 미흡해 검증위원회 위원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1개월 이내 의견서를 작성·의결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이 기간에 사업자 측에서 진전된 내용을 제시할 경우 의견서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11월말 작성·의결되는 자본검증위의 의견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함께 제주도의회에 제출, 심의를 받게 된다. 만약

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게 되면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더불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사업 승인 및 고시 절차가 이뤄진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도 오라2동 일대 357만5000여㎡에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명품 빌리지와 같은 상업시설, 생태전시관, 워터파크, 18홀의 골프장 등이 계획됐다.

이 사업은 201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시작으로 경관, 교통, 재해, 도시건축, 환경영향평가 등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투자금액만 5조2180억원에 달하고 중극계 자본이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어서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에서 사업자에 대한 자본검증을 요구했고, 제주도는 2017년부터 자본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김만덕객주 주말 빙떡 나눔 제주시 산지천 김만덕객주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26일 10월 문화 프로그램을 열고 빙떡 무료 나눔, 제주빌레앙상블 공연을 펼쳤다. 올해부터 김만덕객주 시설물 관리를 맡은 제주문화재단은 매달 정기적인 문화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

# 줄줄이 제동 걸린 아파트 재건축 사업 이도주공 2·3단지·제원아파트 “재검토”

### 경관위·도시계획위 심의 결과

제주 최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들이 나란히 제주도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는 지난 25일 도청 1청사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도주공 2·3단지 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론을 내렸다. 재검토 사유는 지난달 27일 경관위 회의에서 제시된 차량 출입구를 2개소로 하라는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도 경관위원회 회의에서는

### 이도주공 2·3단지가 14층으로 재건축되면

장벽처럼 건물이 들어서 경관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동·서 끝부분의 세대수나 면적을 줄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경사가 심한 사업부지를 평평하게 하기 위해 2단으로 단을 쌓은 부분에 대해서는 3단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도주공 2·3단지는 당초 지하 2층·지상 10층·14개동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9월 건축물 고도가 30m에서 42m로 완화돼 지하 2층·지상 14층·13동·877세대로 변경됐다.

같은날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도 도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제16차 회의를 개최, 제주도 연동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원아파트를 관통하는 중앙 도로를 유지한다면 이를 활용할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라고 사업자 측에 요구했다. 반대로 중앙 도로를 폐도할 경우에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과 이에 대한 공공 기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은 15층·14개동·752세대로 추진되고 있다. 만약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을 고시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밟는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제주체력왕 선발대회 연다 6개 종목 진행… 참가자 모집

제주시는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제주체력인증센터에서 ‘2019 제주 체력왕 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주 체력왕 선발대회는 만 19~64세 이하의 도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측정항목은 상대약력, 10m 왕복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20m 왕복 오래달리기 등 6개 종목이다.

체력왕 선발인원은 청년부(만19~34세), 중년부(만35~49세), 장년부(만50~64세)로 계층별 남·녀 1명씩 총 6명과 체력우수자 12명을 선발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체력인증서와 기념품이 증정되고, 측정결과 최고 득점자 체력왕에게는 10만원 상당의 포상금 지급과 체력우수자는 3~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참가신청은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http://nfa.kspo.or.kr)에서 인터넷 예약 또는 전화예약 및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체력인증센터(064-759-8795-6)로 문의하면 된다.

고대모기자

# “밥 반공기만 주문”… 시청주변 음식점 시범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제주시는 공직자부터 낭비없는 의식문화 자율 실천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11월부터 시청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밥 반공기 주문제를 시범 운영한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시청 주변 음식점 96개소 중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 배출되는 한식 제공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업소별 셀프반찬코너 운영, 반찬 가짓수 등 운영형태 및 음식물 쓰레기 배출 유

형 등을 파악했다.

청사 주변 밥 반공기 주문제 시범 운영에 동의한 업소는 30곳으로 반공기 그릇 지원 및 반공기 주문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반공기 주문제 시범 운영업소에는 상수도 사용자 감면 또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 시설개선자금 우선 응차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를 분석 후 향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 내년 서귀포칠십리축제 콘텐츠 전국 공모

서귀포시는 이달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달간 지역 대표축제인 서귀포 칠십리축제의 정체성 확립 및 특화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0 서귀포칠십리축제 콘텐츠 전국 공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제, 프로그램 등 총 2개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되며 전체 1인 2건(부문별 1건 제안 가능, 동일 부문 중복제안 불가)에 한해 전국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주제 부문은 축제 특징(명칭, 어원 등)을 함축해 상징성 있게 표현하면 된다. 프로그램 부문은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및 특화프로그램으로 발전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축제 홈페이지(www.i70ni.com)에 접속해 제안서양식을 다운로드 후 축제 담당자 이메일(dark11gh@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760-3946.

이태윤기자 lly9456@ihalla.com

# 선덕사서 내달 3일 사찰건축학 토크콘서트

###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 초청

서귀포시 상호동 5·16도로변에 위치한 선덕사(善德寺)가 11월 3일(오전 10시)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 초청 사찰건축학 토크콘서트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토크콘서트의 주제는 ‘한국 미의 특징과 불교미술’으로, 윤 관장은 한국(美)의 특징과 불교미술의 상관관계를 알기 쉽게 들려줄 예정이다.

도민을 대상으로 인문학강좌를 통해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선덕사의 이번 강연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된 문화재단의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이다.

선덕사는 중창 과정에서 전체 건물이 목조로 건축됐고, 제주석을 이용한 5층석탑이 건립돼 있다. 선덕사는 서귀포시 향토유형유산 제3호, 선덕사 대적광전은 사찰건축의 학술적 가치가 높아 제주도 문화재자료 제8호

로 지정됐다. 특히 선덕사에는 중요한 불교문화유산인 묘법연화경 목판본류 3책을 보존하고 있다. 이 경전은 조계종 총정 3·4·6대를 지낸 고암대종사가 전해준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돼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윤범모 관장 초청 강연회 참가비는 무료로, 사찰문화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필수로, 참가자에게는 점심이 제공된다. 문의 선덕사 홈페이지(http://sunduksa.kr), 732-7677.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novita

A KOHLER COMPANY

### 노비타 스파비데 출시 기념 이벤트

# “비데에 스파를 더하자 행운을 더하자!”

**이벤트기간** | 9월 18일 ~ 10월 31일

**당첨자 발표** | 11월 15일

**novita**  
노비타 제주점  
(구, 제민일보 맞은편)

신광로터리 | 마리나사거리  
● 빙스 ● 요양병원 ● 신제주로터리 ● 마리나호텔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 EVENT 01 구매 인증 경품 추첨 이벤트

1등 휴테크 안마의자

2등 THE GOLD 999.9 3.75g

3등 50000

푸짐한 경품

1등 휴테크 안마의자 17+ [1명]    3등 백화점 상품권 5만원 권 [10명]

2등 순금 골드바 1돈 [5명]        4등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명]

이벤트 대상 제품  
BD-TE91M / BD-TD90M / BD-AFD500 / BD-WD60 / BD-AE91

### EVENT 02 특별한 사은품 증정 이벤트

프리미엄  
BD-TE91M

399,000원

프리미엄  
BD-TD90M

379,000원

BD-AC50N

199,000원

NEW  
BD-AE91

269,000원

자동 디스펜서  
6만원 상당의 정품 필터 (6개)

정품 필터 (2개)